

이·미용실 옥외가격표시 '드문드문'

오늘부터 시행...광주 11·전남 10%만 부착 대표품목 선택 애매...참여율 저조 속 혼란

31일부터 광주·전남 지역 등에서 실시되는 '옥외(屋外)가격표시제'를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상 업체가 일부에 그친데다, 게시하는 가격표조차도 두루뭉술하게 표시가 가능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31일부터 공중 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신고 면적 66㎡(20평) 이상의 이·미용실을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시의 경우 등록된 이·미용실 4217개소(이용 641·미용 3576) 중 11.1%인 469개소(이용 72·미용 397)가 해당되고 전남에서는 22개 시·군의 5334곳(이용 1262·미용 4072)의 10.6% 수준인 564곳(이용 99·미용 465)이 규정된 대표 품목과 가격 등을 업소 출입문, 외벽면, 창문 등에 부착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정확한 가격을 영업장 바깥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소비자 선택을 돕는 한편, 업소간 가격 경쟁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지금까지 이·미용실에서는 서비스를 받은 이후에야 가격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불편을 호소해온 소비자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전체 업소의 10~11% 수준에 불과해 소비자들의 가격 선택권을 보장해준다는 애초 취지와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광주만 하더라도 이·미용실 10곳 중 한 곳만이 표시제 참여 업소에 해당해 오히려 소비자들의 혼란만 부추길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상무·급호 지구 등 대표적 유흥가를 포함한 서구 지역도 참여 업체는 등록된 이·미용실 948개소 가운데 24%인 226개에 불과하다.

전남은 더하다. 이음실의 경우 전체 1262개소 중 고차 99개소 뿐이다.



한 시민이 31일부터 시행되는 '옥외가격 표시제'에 따라 점포 바깥에 가격표가 게시된 미용실 앞을 지나가고 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전남도 관계자는 "20평형대의 큰 이·미용실은 전남에 많지 않다"고 말했다.

표시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논란이 나오고 있다. 이음업의 경우 커트·면도를 포함해 3가지 이상, 미용업은 커트·펌을 비롯한 5가지 이상, 피부 미용업은 '고객이 선호하는 대표적 품목 5가지 이상'을 영업장 밖에 게시해

야 하지만 애매한 문구 탓에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줄 지는 미지수다.

편이라도 종류가 다양하고 업소별 기술력 등도 다른데다, 선호 품목도 이·미용실간 차이가 적지 않은 만큼 자칫 가격 비교 자체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단속 인원

도 없고 행정 처분에 나선다 하더라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단속할 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소연한다.

29일 동구 한 미용실을 찾은 장경숙(여·40)씨는 "가격을 표시하려면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표시하는 게 소비자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33분 해질 18시 00분 달돋이 22시 11분 달질 09시 24분

빗방울
오후에 차차 흐려지고 밤엔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광주	구름조금	3/13C	목포	구름많음	3/12C
여수	구름조금	5/11C	나주	구름조금	2/13C
완도	구름많음	4/12C	구례	구름조금	0/12C
강진	구름많음	3/12C	해남	구름조금	3/12C
장흥	구름조금	2/12C	순천	구름조금	0/12C
영광	구름조금	1/12C	진도	구름조금	3/12C
전주	구름조금	1/13C	군산	구름조금	2/12C
남원	구름조금	-2/13C	홍산도	구름조금	7/12C

〈오전〉 바다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1.0~2.0m

〈오후〉 바다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1.0~2.0m

◇주간날씨
날짜 2/1(금) 2(토) 3(일) 4(월) 5(화) 6(수)
날씨 [날씨 아이콘]
최저/최고 9/12 0/4 -2/6 4/7 0/5 -1/5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밀가루 세례·알몸 안돼요

광주경찰, '졸업식 폭력 뒤풀이' 방지 활동 강화

광주지방경찰청이 초·중·고등학교 졸업 시즌에 맞춰 순찰·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폭력성이 심해지면서 논란이 일었던 '졸업식 뒤풀이'(일명 졸업뺨)를 막기 위해서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다음달 1일 과학교, 2일 임곡·금구초교를 시작으로 2월 21일까지 초등학교 148개·중학교 86개·고등학교 65개교에서 열리는 졸업식 기간 중 발생할 지 모르는 강압적 뒤풀이에 대한 예방활동에 나선다. 경찰은 졸업식 당일 가용 인력

을 총동원해 배치하고 교사·유관 단체와 합동으로 순찰에 나서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폭력) ▲알몸 상태에 휴대전화로 촬영·배포하는 행위(성폭력범죄 등) ▲알몸 상태로 뛰거나 단체 기합을 주는 행위(강제추행, 강요) ▲졸업식 뺨뺨이 명목으로 돈 빼앗는 행위(공갈) 등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심각한 뒤풀이 발생 시 주동자 뿐 아니라 단순 가담자도 엄정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광주 동구 협동조합 활성화 '팔 걷었다'

區, 재정지원·전담조직 신설 등 시책 발표

2000만원까지 무담보로 대출해 주는 '사회적 경제 보증 특례협약'도 함께 추진할 복안을 세웠다.

이와 함께 동구는 협동조합 상담과 준비동아리를 지원할 지원센터도 구축해 설립준비를 도울 방침이다.

현재 동구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대비한 '아시아문화협동조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맘 협동조합' 등 8개 협동조합이 설립신고를 마쳤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시 동구가 30일 최근 붐이 일고 있는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 재정 지원, 지원센터 구축, 조례 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활성화 시책을 발표했다.

동구는 최근 경제사회발전의 대안 모델로 협동조합을 집중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전담조직 신설, 올해 분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한 2000만원 예산을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 총 3억원 내에서 단체당

29)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밤·빵 너무 좋아하면 지방간 위험 커진다

탄수화물 과잉, 비알콜성 지방간 2배 증가

술과 기름이 아니라 당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지방간 위험이 커지므로 식생활에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을수록 비알콜성 지방간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비알콜성 지방간이란 음주량이 과도하지 않은데도 간의 지방량이 5% 이상 증가하는 질환으로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등과 연관이 있다.

일반적으로 비알콜성 지방간은 고지방 식이가 원인으로 지목되나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로도 간에 지방이 쌓일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지난해 식약청의 연구사업에 따르면 국내 성인의 비알콜성 지방간 유병률은 지난 2004년 11.5%에서 2010년 23.6%로 증가했다.

이 조사에서 탄수화물 섭취량 하위 33% 집단과 상위 33% 집단을 비교한 결과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은 집단의 비알콜성 지방간 위험이 남성에서 70%, 여성에서 무려 280% 더 높게 나왔다. 간염증 수치(ALT, AST)는 탄수화물 섭취 상위군이 하위군에 비해 남성이 30~110%, 여성은 같거나 많게는 120%까지 더 올라갔다.

탄수화물을 포함한 당류 전체 섭취량이 하루 60g을 초과하는 집단은 25g 미만인 집단에 비해 간염증 수치가 남성에서 150~160%, 여성에서 150~220% 높았다. /연합뉴스

저소득층 고교생 6200명

도교육청, 입학금 지원

전남지역 저소득층 가정 고등학생들에게 올해 처음으로 입학금이 지원된다.

전남도교육청은 30일 저소득층 가정 고등학생 6200여명에게 총 8500여만원의 입학금을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했다. 학생 1인당 입학금은 학교 급지와 계열에 따라 1만1800원에서 1만5900원까지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http://www.hankooktea.co.kr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한국제다 10만평의 자가농장과 60년의 제다
 各種 유기농 제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 선정
 국제 녹차 품평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外 3개국 수출중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엄선된 名인의 차만 남품
 名節의 高貴한 선물은 名인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제품문의 · 광주 차생원 : 062)224-2902 · 광주 신세계점 : 062)360-1232 · 광주 롯데점 : 062)221-1037 · 광주 현대점 : 062)510-7040 · 목포 차생원 : 061)281-1002 · 서울 차생원 : 02)730-2983 · 부산 차생원 : 051)256-7007-8